

서울시 고등학생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김민아* ·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하루당 약 90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사회에서 오늘날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구 혹은 생명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과학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큰 사고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명선, 2001). 이런 사고위험에서 학교 또한 예외일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사고 발생건수가 98년 14,481건, 99년 15,98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사고원인의 경우 학생부주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1999).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시설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방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는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

장 많은 교육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이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한국교육연감, 2000). 그러나 이런 장점들이 안전교육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도 한해만하더라도 학교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금을 5,103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9년도 학교사고 발생건수에서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33.9%이고, 중학교 32.6%, 고등학교 29.0% 순으로 발생하였다(교육부, 1999). 따라서 학교안전교육은 유아, 초·중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38년경에 이미 47개주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독일은 1950년에 학교교통안전교육을 연방법률로 의무화하는 등(도로교통안전협회, 1996)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학교안전교육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교안

전교육은 현재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 취급되어지고 있고 체계적이지도 않다는데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에서는 안전교육이 고등학교 필수교과로 채택되어 연간 총 4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곽상만 외, 1987).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통합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교련과목과 재량활동에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교련과목은 제6차에서부터 국가와 생활 속의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교과 성격이 전환하였으나, 제7차에서는 안전을 도모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어,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등 사고와 재난의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안전교육이 창의적 재량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 선택과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내용이나 방법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못한 실정이다(교육부, 1997). 이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실시될 새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교육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절충된 안전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루어진 안전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안전에 대한 종사자와 학부모의 요구도 조사(이희정, 1997, 이지영, 2000), 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백경희, 1997; 곽은복,

2000; 유혜경, 2000; 허재화, 2000)가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학교안전사고와 대책과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연구(전춘옥, 1997; 윤재길, 1999; 김동훈, 1981; 전성태, 1997; 최영일, 1998; 백경원, 1999; 정충국, 1999; 정명애, 2000)등이 있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중학교 실험실 안전에 관한 연구(송선양, 1992), 공업고등학교의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연구(장시준, 1984; 정구원, 1993; 김형식, 1997; 정하성, 1998; 박순우, 1999; 문태진, 2000; 오성근, 2000)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나 교육내용,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 교육내용 등의 요구도 조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효과적인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도움이 되고자 안전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교육실태와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속한 11개 지역교육청(북부교육청, 성북교육청, 동부교육청, 중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성동교육청, 강서교육청, 강남교육청, 강동교육청, 남부교육청, 동작교육청)에서 각각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1개 교씩 33개 학교를 임의로 추출하고, 다시 그

학교에서 2학년 1학급(약 40명)을 선정함으로써 120명씩 총 1,32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4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하였고,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선정된 서울시내의 33개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감 승인하에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지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수거방법은 24개 학교는 배포후 즉시 수거하였고, 9개 학교는 배포후 1일 후에 수거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1,320부였으며, 이중 1,28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이었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26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결과 총 1,25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도구는 고등학생 안전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중 교련과목에 제시된 안전교육 내용과 한국교육연감에 제시된 안전지도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제작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친 면접과 예비조사, 지도교수와 교련교사의 자문을 통해 형식과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일반적인 특성, 사고경험과 보건실이용 안전교육실태, 안전에 관한 태도, 안전교육 요구내용, 안

전교육 개선방안 등 총 125개 문항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교구분, 통학방법,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사고경험실태를 초등학교이전, 초등학교시기, 중학교시기, 고등학교시기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8가지 사고영역에 대하여 대상자 자신이 경험한 사고 경험횟수와 사고경험시기, 그리고 보건실 이용유무와 이용횟수를 중학교시기와 고등학교시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안전에 관한 태도에서는 총 9개 문항으로 살펴봐왔는데, 사회문제중요도순위, 안전문제 관심정도, 안전문제 심각성정도, 심각한 안전문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집단, 안전지식정도, 안전지식습득경로, 안전수칙이행 정도와 타인에 대한 안전수칙이행정도로 구성하였다.

안전교육실태로는 대상자가 고등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 경험여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담당교사, 교육평가, 교육만족여부, 실생활 적용여부교육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만족여부', '실생활 적용여부교육'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평가하도록 하게 하였다.

안전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필요성여부, 독립과목 필요성여부, 교육내용에 관한 요구(내용, 방법, 시간, 평가, 담당교사), 안전교육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교육내용에 관한 요구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교육부자료를 통해 구성한 13개 영역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교육내용으로 서술한 52개 문항에 대하여 이전교육 경험 유무와 함께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며 배우기 원하는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였

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 사용한 안전교육내용 요구도 문항의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각 영역별로 0.8207-0.9264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전교육 요구도에 대한 조사방법의 신뢰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대상자로 하여금 희망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참여여부'와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후에 운전면허 취득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가산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 개선방안'은 대상자가 설문지 질문 이외에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모두 부호화하여 SAS(Stat-istic Analysis System)프로그램 6.12를 이용,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고경험실태, 보건실이용유무, 안전에 대한 태도는 빈도,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2. 안전교육실태는 빈도, 백분율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은 χ^2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안전교육의 요구내용은 백분율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반적인 특성과 안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를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내용

조사항목	내 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교구분, 통학방법, 지역	4
사고경험과 보건실이용	사고경험횟수, 사고경험시기, 보건실이용유무, 보건실이용횟수	39
안전에 관한 태도	사회문제중요도순위, 안전문제 관심정도, 안전문제 심각성, 심각한 안전문제, 안전사고예방 위해 노력해야할 집단, 안전에 대한 지식정도, 안전정보 출처, 안전수칙이행정도, 타인의 안전수칙이행정도	9
안전교육실태	안전교육 경험여부, 교육받은내용, 교육받은시간, 교육방법, 담당교사, 교육평가, 교육만족여부, 실생활 적용여부	10
안전교육 요구도	안전교육 필요성 인식여부, 독립과목 필요성여부, 교육내용에 관한 요구(내용, 방법, 시간, 평가, 담당교사) 참여여부, 안전교육가산점 안전교육 개선방안	63
계		125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1,255명 중 남학생 638명(50.8%), 여학생 617명(49.2%)으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으며, 학교구분은 남학교 430명(34.3%), 여학교 404명(32.2%), 남녀공학 421명(33.5%)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지역으로는 강북 685명(54.6%), 강남 570명(45.4%)이었다.

통학방법은 버스 42.8%, 도보 3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타로는 자전거, 자가용, 택시 등이 있다<표 2>.

2. 연구대상자의 사고경험실태와 보건실 이용실태

1) 연구대상자의 사고경험 실태

(1) 연구대상자의 사고발생영역별 사고경험

본 연구에서 사고발생은 사고로 인해 하루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고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학교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스포츠사고, 수상사고, 중독사고, 가스·전기·화재사고, 가정사고 등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정사고(56.8%)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다음으로는 학교사고(46.3%), 교통사고(41.6%), 스포츠사고(36.6%), 중독사고(32.3%), 가스·전기·화재사고(15.9%)순으로 사고를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가정사고와 함께 학교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표 3>.

세부항목별 사고경험유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에서는 ‘길에서 놀다가 차, 오토바이에 부딪치는 사고’(19.7%)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거나 뒤에 타고 있다가 일어난 사고’(5.5%)가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명	%
성별	남	638	50.8
	여	617	49.2
학교구분	남학교	430	34.3
	여학교	404	32.2
	남녀공학	421	33.5
지역	강북	685	54.6
	강남	570	45.4
통학방법	버스(마을버스 포함)	538	42.8
	도보	496	39.5
	지하철	145	11.6
	기타(자전거·자가용·택시등)	76	6.1
	계	1,255	100.0

가장 낮았다. 영역별 사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정사고에서는 '집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24.7%)가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믹서기, 다리미, 전자렌지 등) 사용중의 사고'(6.6%)는 가장 낮았다. 학교사고에서는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사고'(28.4%)가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간의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5.3%)가 가장 적었다. 스포츠사고에서는 '농구, 축구, 피구 도중에 사고'(32.1%)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수상사고에서는 '물놀이 및 수영중에 난 사고'(15.4%)가, 중독사고에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난 사고'(3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지역적 특성으로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4.5%)를 많이 경험하였고, 가스·전기·화재사고 경험에서는 '성냥, 라이터, 촛불, 폭죽, 화약 등을 다룰 때 난 사고'(8.8%)로 가장 높았고 '가스 누수로 인한 질식 및 화재·폭발사고'(1.3%)가 가장 낮았다.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는 '스포츠(농구, 축구, 피구 등)중에 난 사고'(32.1%)였고, 가장 적게 경험한 사고는 중독사고에서 '독성물질(취약, 세제 등)을 잘못 먹어서 일어난 사고'였다<표 4>.

영역별 사고경험시기에서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41.2%), 수상사고(40.9%), 중독사고(37.9%), 가스·전기·화재사고(41.7%), 가정사고(39.9%)는 초등학교시기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하였고, 학교사고(44.5%), 자연재해(50.0%), 스포츠사고(53.0%)는 중학교시기에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초등학교 이전에는 가정사고(53.1%)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교통사고(14.5%), 수상사고(6.7%) 순이었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가정사고(32.7%), 학교사고(21.3%), 교통사고(14.9%) 순으로 경험하였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사고(중학교 29.1%, 고등학교 26.8%)가 가장 높았고, 그 외 가정사고(중학교 21.7%, 고등학교 22.3%), 스포츠사고(중학교 21.4%, 고등학교 18.0%) 순이었다.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가정사고를, 중·고등학교시기에는 학교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사고발생이 시기에 따라 환경이 변하면서 사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5>.

<표 3> 영역별 사고경험

명(%)

영역	사고경험유무			계
	유	무	무응답	
교통사고	522(41.6)	665(53.0)	68(5.4)	1,255(100.0)
가정사고	721(56.8)	474(37.8)	68(5.4)	1,255(100.0)
학교사고	581(46.3)	606(48.3)	68(5.4)	1,255(100.0)
스포츠사고	459(36.6)	728(58.0)	68(5.4)	1,255(100.0)
수상사고	199(15.8)	988(78.8)	68(5.4)	1,255(100.0)
중독사고	405(32.3)	782(62.3)	68(5.4)	1,255(100.0)
가스·전기·화재사고	200(15.9)	987(78.7)	68(5.4)	1,255(100.0)
자연재해	64(5.1)	1,123(89.5)	68(5.4)	1,255(100.0)
기타	19(1.5)	1,168(93.1)	68(5.4)	1,255(100.0)

<표 4> 세부항목별 사고경험

명(%)

영역	세부항목	사고경험유무			계
		유	무	무응답	
교통사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의 사고	210(16.8)	977(77.8)	68(5.4)	1,255(100.0)
	버스, 자동차, 택시 등을 타고있거나 또는 타고 내릴때 사고	110(8.8)	1,077(85.8)	68(5.4)	1,255(100.0)
	스케이트보드, 롤러브레이드, 킥보드 등을 타다가 난 사고	154(12.2)	1,030(82.1)	71(5.7)	1,255(100.0)
	길에서 놀다가 차, 오토바이에 부딪치는 사고	247(19.7)	940(74.9)	68(5.4)	1,255(100.0)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거나 뒤에 타고 있다가 난 사고	69(5.5)	1,118(89.1)	68(5.4)	1,255(100.0)
가정사고	집안에서 미끄러져넘어지는 사고	310(24.7)	875(69.7)	70(5.6)	1,255(100.0)
	가전제품(믹서, 다리미, 전자렌지 등) 사용중의 사고	83(6.6)	1,104(88.0)	68(5.4)	1,255(100.0)
	불이나 뜨거운 물체, 뜨거운 물로 인한 사고	298(23.8)	889(70.8)	68(5.4)	1,255(100.0)
	장난감이나 사탕, 동전, 단추 등을 삼켜서 숨이 막히는 사고	154(12.3)	1,033(82.3)	68(5.4)	1,255(100.0)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철봉 등)를 타거나 놀이터에서 노는중 사고	279(22.2)	908(72.4)	68(5.4)	1,255(100.0)
	집에 도둑이 들거나 유괴, 구타, 강간 등의 사고	213(17.0)	971(77.3)	71(5.7)	1,255(100.0)
학교사고	체육시간 중 운동장에서 사고	357(28.4)	830(66.2)	68(5.4)	1,255(100.0)
	수업시간중의 사고(실험·실습(생물, 화학, 가정(기술))등 포함)	203(16.2)	981(78.1)	71(5.7)	1,255(100.0)
	쉬는시간, 청소시간에 교실, 복도,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331(26.3)	853(68.0)	71(5.7)	1,255(100.0)
	과외활동중 사고(특별활동, 소풍, 학교행사 등)	85(6.8)	1,102(87.8)	68(5.4)	1,255(100.0)
	친구, 선후배간의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	66(5.3)	1,121(89.3)	68(5.4)	1,255(100.0)
스포츠 사고	스포츠(농구, 축구, 피구 등)를 하다가 난 사고	403(32.1)	779(62.1)	73(5.8)	1,255(100.0)
	스케이트, 스키 등을 타다가 난 사고	104(8.3)	1,083(86.3)	68(5.4)	1,255(100.0)
	등산이나 캠핑시 발생한 사고	70(5.6)	1,117(89.0)	68(5.4)	1,255(100.0)
수상사고	물놀이 및 수영중에 난 사고	193(15.4)	994(79.2)	68(5.4)	1,255(100.0)
	배를 타다가 난 사고	8(0.7)	1,179(93.9)	68(5.4)	1,255(100.0)
중독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일어난 사고	394(31.4)	783(62.4)	78(6.2)	1,255(100.0)
	일반약(감기약, 마이신 등)을 잘못 먹어서 일어난 사고	29(2.3)	1,158(92.3)	68(5.4)	1,255(100.0)
	독성물질(취약, 세제 등)을 잘못 먹어서 일어난 사고	4(0.3)	1,183(94.3)	68(5.4)	1,255(100.0)
가스	가스 누수로 인한 질식사 및 화재·폭발사고	16(1.3)	1,171(93.3)	68(5.4)	1,255(100.0)
	전기	전기 감전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85(6.8)	1,102(87.8)	68(5.4)
화재사고	성냥,ライター, 촛불, 폭죽, 화약 등을 다룰 때 난 사고	110(8.8)	1,077(85.8)	68(5.4)	1,255(100.0)
	겨울철 난방기(난로, 히터)에 의한 사고	39(3.1)	1,148(91.5)	68(5.4)	1,255(100.0)
자연재해	풍·수해 발생으로 난 사고	56(4.5)	1,131(90.1)	68(5.4)	1,255(100.0)
	지진의 발생으로 난 사고	8(0.7)	1,179(93.9)	68(5.4)	1,255(100.0)
기 타	담 넘어가다 다친사고, 유리에 의한 사고 등	22(1.8)	1,163(92.6)	70(5.6)	1,255(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유무
 성별에 따른 사고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사고를 더 많이 경험
 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4.28, p<0.05$). 학교구분에 따른 사고경험
 유무에 있어서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순
 으로 사고를 많이 경험하였고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chi^2=8.79, p<0.05$) <표 6>.

<표 5> 영역별 사고 경험시기(복수표기 가능)

(단위:명(%))

영역	사고경험시기				계
	초등학교이전	초등학교시기	중학교시기	고등학교시기	
가정사고	573 (27.9) (53.1)	778 (37.9) (32.7)	504 (24.6) (21.7)	196 (9.6) (22.3)	2,051 (100.0)
학교사고	100 (6.6) (9.3)	506 (33.4) (21.3)	676 (44.5) (29.1)	236 (15.5) (26.8)	1,518 (100.0)
스포츠사고	34 (3.6) (3.2)	248 (26.5) (10.4)	496 (53.0) (21.4)	158 (16.9) (18.0)	936 (100.0)
교통사고	158 (18.4) (14.5)	354 (41.2) (14.9)	224 (26.0) (9.6)	124 (14.4) (14.1)	860 (100.0)
중독사고	68 (8.9) (6.3)	290 (37.9) (12.2)	278 (36.2) (12.0)	130 (17.0) (14.8)	766 (100.0)
가스·전기·화재사고	58 (24.1) (5.4)	100 (41.7) (4.2)	66 (27.5) (2.8)	16 (6.7) (1.8)	240 (100.0)
수상사고	72 (31.3) (6.7)	94 (40.9) (4.0)	50 (21.7) (2.2)	14 (6.1) (1.6)	230 (100.0)
자연재해	16 (28.6) (1.5)	6 (10.7) (0.3)	28 (50.0) (1.2)	6 (10.7) (0.6)	56 (100.0)
계	1,063 (100.0)	2,370 (100.0)	2,294 (100.0)	874 (100.0)	6,601 (100.0)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고경험 유무

(단위 :명(%))

특성	구분	사경험생유무		계	χ^2
		유	무		
성별	남	543(85.1)	95(14.9)	638(100.0)	4.28*
	여	498(80.7)	119(19.3)	617(100.0)	
학교구분	남학교	371(86.3)	59(13.7)	430(100.0)	8.79*
	여학교	339(83.9)	65(16.1)	404(100.0)	
	남녀공학	331(78.6)	90(21.4)	421(100.0)	
	계	1,041(82.9)	214(17.1)	1,255(100.0)	

*p<0.05

통학방법에 있어서는 버스, 지하철, 자가용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보다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이 강남에 비해 높았으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건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1회이상 이용 경험이 중학교 43.8%, 고등학교 25.6%이었고, 보건실을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시기 모두 1-2회에서 높은 이용율(중학교(57.1%), 고등학교(64.8%))을 보인다<표 7>.

2) 연구대상자의 보건실 이용실태

(1) 대상자의 보건실 이용실태

본 연구에서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보건실 이용실태에서 사고로 인해 하루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고로 사고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조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실 이용실태

성별에 따른 보건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시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건실을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중학교($\chi^2=14.77$, $p<0.001$), 고등학교($\chi^2=14.94$, $p<0.05$)).

<표 7> 사고에 따른 보건실 이용유무와 이용횟수

(단위 : 명(%))

구분	영역	중학교	고등학교
이용유무	유	550(43.8)	321(25.6)
	무	553(44.1)	775(61.8)
	무응답	152(12.1)	159(12.8)
	계	1,255(100.0)	1,255(100.0)
이용자의	1	170(30.9)	159(49.5)
이용횟수(회)	2	144(26.2)	49(15.3)
	3	70(12.7)	52(16.2)
	4 -	149(27.1)	52(16.2)
	무응답	17(3.1)	9(2.8)
	계	550(100.0)	321(100.0)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실 이용유무(중학교시기)

(단위 : 명(%))

특성	구분	보건실이용유무			계	χ^2
		유	무	무응답		
성별	남	341(53.5)	242(37.9)	55(8.6)	638(100.0)	14.77**
	여	209(33.9)	311(50.4)	97(15.7)	617(100.0)	
중 학 교	남학교	240(55.8)	160(37.2)	30(7.0)	430(100.0)	8.67*
	여학교	128(31.7)	211(52.2)	65(16.1)	404(100.0)	
	남녀공학	182(43.2)	182(43.2)	57(13.6)	421(100.0)	
계		550(43.8)	553(44.1)	152(12.1)	1,255(100.0)	

* $p<0.05$ ** $p<0.001$

학교구분에 있어서 남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남녀공학, 여학교 순이었고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중학교($\chi^2=8.67$, $p<0.05$), 고등학교($\chi^2=13.07$, $p<0.05$)).

지역에 있어서는,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통학방법에 있어서는 중학교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도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순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자가용, 마을버스, 버스, 도보, 지하철 순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표 9>.

3. 안전에 관한 태도

안전에 관한 태도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안전문제(16.3%)는 교육문제(69.0%), 정치문제(57.7%), 환경문제(49.4%), 경제문제(42.0%), 청소년문제(38.2%), 복지문제(26.6%) 다음으로 가장 낮은 선택율을 보여 고등학생인 대상자들은 안전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한편 안전에 대한 관심여부에 대해 ‘보통이다’가 678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심있다’ 327명(26.1%), ‘관심없다’ 237명(18.9%)으로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남녀별로는 ‘보통이다’가 남학생 333명(52.2%), 여학생 345명(55.9%), ‘관심있다’는 남학생 166명(26.1%), 여학생 161명(26.1%)으로 나타났고, ‘관심없다’의 경우 남학생 136명(21.3%)이고 여학생이 101명(16.4%)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4.10$, $p<0.05$)<표 10>.

학교구분에 있어서 ‘관심있다’는 여학교가 남학교. 남녀공학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이다’는 남녀공학이, ‘관심없다’는 남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전문제의 심각성에서 ‘심각하다’가 남학생 284명(44.5%), 여학생 349명(56.6%)으로 안전에 대해 남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남학생 228명(35.7%), 여학생 307명(49.8%), ‘심각하지 않다’는 남학생 117명(18.4%), 84명(13.6%)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설 이용유무(고등학교시기)

(단위 : 명(%))

특성	구분	보건설이용유무			계	χ^2
		유	무	무응답		
성별	남	214(33.5)	366(57.4)	58(9.1)	638(100.0)	14.94*
	여	107(17.3)	409(66.3)	101(16.4)	617(100.0)	
고등학교 구분	남학교	159(37.0)	241(56.0)	30(7.0)	430(100.0)	13.07*
	여학교	63(15.6)	276(68.3)	65(16.1)	404(100.0)	
	남녀공학	99(23.5)	258(61.3)	64(15.2)	421(100.0)	
	계	321(25.6)	775(61.8)	159(12.6)	1,255(100.0)	

* $p<0.05$

안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차이는 없었다<표 10>. 그러나 사고경험유무에 있어서는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51.3%) 사고경험이없는 사람(46.2%)보다 안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6.14$, $p<0.05$)<표 11>.

이에 연구대상자들은 안전문제를 다른 사회 문제중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조순(1996)의 시민의식 조사결과와 비슷하나 안전문제 관심도에 있어서 '관심있다'의 결과(91.7%)보다 낮았는데 이는 대상자의 특성에 의해 교육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

<표 10>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안전문제 관심정도와 심각성

항 목	구 분	성 별		χ^2
		남 명(%)	여 명(%)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매우관심있다	21(3.3)	16(2.6)	4.10*
	관심있는편이다	145(22.7)	145(23.5)	
	보통이다	333(52.2)	345(55.9)	
	관심없는편이다	102(16.0)	91(14.8)	
	전혀관심없다	34(5.3)	10(1.6)	
	무응답	3(0.5)	10(1.6)	
안전의 심각성	매우심각하다	44(6.9)	42(6.8)	1.23
	심각한편이다	240(37.6)	307(49.8)	
	보통이다	228(35.7)	175(28.4)	
	심각하지않은편이다	91(14.3)	78(12.6)	
	전혀심각하지않다	26(4.1)	6(1.0)	
	무응답	9(1.4)	9(1.4)	
계		638(100.0)	617(100.0)	

* $p<0.05$

<표 11> 사고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안전문제 심각성여부

(단위 : 명(%))

항 목	구 분	사고경험여부		계	χ^2
		유	무		
안전의 심각성	매우심각하다	72(6.9)	14(6.5)	86(6.9)	6.14*
	심각한편이다	462(44.4)	85(39.7)	547(43.6)	
	보통이다	327(31.4)	76(35.5)	403(32.1)	
	심각하지않은편이다	141(13.5)	28(13.1)	169(13.4)	
	전혀심각하지않다	28(2.7)	4(1.9)	32(2.6)	
	무응답	11(1.1)	7(3.3)	18(1.4)	
계		1,041(100.0)	214(100.0)	1,255(100.0)	

* $p<0.05$

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는 교통사고로 전체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폭력사고가 18.5%를 차지하였고, 가정내사고(1.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교통사고와 성폭력사고를 심각한 안전문제로 나타냈으며 성폭력사고의 경우 남학생(16.0%)보다 여학생(21.1%)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집단으로는 '시민개개인'(63.1%)이 가장 높았고, '보건소'는 0.2%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조순(1996), 한국교육연감(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성별로는 '시민개개인'은 남성 66.8%, 여성 59.3%로 남성이 높았으며, '정부·서울시'의 경우 남성이 17.0%, 여성이 22.0%로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7.01, p<0.05$)<표 13>.

<표 12> 성별에 따른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

항 목	구 분	남	여	계
		명(%)	명(%)	
안전문제	교통사고	279(43.7)	271(43.9)	550(43.8)
	성폭력사고	102(16.0)	130(21.1)	232(18.5)
	학교내사고	57(9.0)	20(3.2)	77(6.1)
	건물·시설관련 안전사고	42(6.6)	26(4.2)	68(5.4)
	가스·전기·화재사고	44(6.9)	70(11.3)	114(9.1)
	가정내사고	14(2.2)	8(1.3)	22(1.8)
	기타(병법·식중독·약물·여행·자연재해사고 등)	59(9.2)	50(8.1)	109(8.7)
	무응답	41(6.4)	42(6.9)	83(6.6)
계	638(100.0)	617(100.0)	1,255(100.0)	

<표 13>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

항 목	구 분	남	여	계	χ^2
		명(%)	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할 집단	정부·서울시	108(17.0)	136(22.0)	224(19.3)	7.01*
	시민개개인	426(66.8)	366(59.3)	792(63.1)	
	사회단체	18(2.8)	35(5.7)	53(4.2)	
	학교	42(6.6)	18(3.0)	60(4.8)	
	기타(건설관계자,보건소)	39(6.0)	45(7.3)	84(6.8)	
	무응답	5(0.8)	17(2.7)	22(1.8)	
	계	638(100.0)	617(100.0)	1,255(100.0)	

*p<0.05

안전지식정도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의 경우 42.4%이었으며 32.6%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하였고,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3.6% 순이었다. 안전지식 습득경로로는 ‘TV·라디오·신문 등’이 57.6%, ‘학교 수업시간’ 14.7%, ‘가족이나 친척의 말씀이나 행동에서’ 12.6% 순이었다<표 14>.

대상자의 안전수칙이행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44.8%이고, ‘지킨다’ 36.4%, ‘지키지 않는다’ 17.3%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보건실이용여부에 있어서 보건실을 이용한 사람이 보건실을 이용하지 않은사람에 비해 중·고등학교시기 모두 본인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14> 연구대상자의 안전지식정도와 습득경로

항 목	구 분	명	%
안전예방지식	매우많이안다	24	2.0
	대체로 아는편이다	271	21.6
	보통이다	532	42.4
	대체로 모르는편이다	377	30.0
	전혀모른다	32	2.6
	무응답	19	1.4
안전지식	학교 수업시간	184	14.7
습득경로	TV·라디오·신문	723	57.6
	가족이나 친척의 말씀이나 행동에서	158	12.6
	서적류	56	4.5
	기타(영화, 교회에서, 친구말이나 행동에서)	134	10.6
	계	1,255	100.0

<표 15> 대상자의 안전수칙이행정도와 연구대상자가 본 타인의 안전수칙이행정도

항 목	구 분	명	%
연구대상자의 안전수칙이행	매우잘지킨다	40	3.2
	대체로 지키는편이다	417	33.2
	보통이다	562	44.8
	대체로 안지키는편이다.	195	15.5
	전혀안지킨다	23	1.9
	무응답	18	1.4
연구대상자가 본 타인의 안전수칙이행	매우잘지킨다	13	1.0
	대체로 지키는편이다	131	10.4
	보통이다	551	43.9
	대체로 안지키는편이다	458	36.5
	전혀안지킨다	80	6.4
	무응답	22	1.8
	계	1,255	100.0

연구대상자가 본 타인의 안전수칙이행에 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43.9%, '지키지 않는다' 42.9%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킨다'는 11.4%로 나타나 대상자들 스스로는 안전수칙이행을 대체로 지키고 있으나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다<표 15>.

4. 안전교육실태

1) 대상자의 안전교육경험여부

안전교육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배운적이 '있다'가 총 643명(51.2%)으로 그 중 남자 52.5%, 여자 49.9%로 남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학교구분으로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이 각각 55.1%, 49.8%, 48.7%로 여학교나

남녀공학은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교가 조금 높았다. 지역으로는 강북 45.5%, 강남 58.1%로 강남이 안전교육경험이 '있다'에서 높았다. 그러나 교육경험에 있어서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만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의 실시가 현재 얼마나 미미한지 알 수 있었다<표 16>.

2) 대상자의 안전교육 실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담당교사로는 교련교사가 가장 높았고, 양호교사, 체육교사 순이었고, 기타로는 가정(기술)교사, 과학교사, 소방관 등이 있었다. 성별이나 학교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17>.

<표 16> 성별, 학교구분, 지역별 안전교육경험유무

(단위 : 명(%))

특성	구분	안전교육경험유무			계
		유	무	무응답	
성별	남	335(52.5)	296(46.4)	7(1.1)	638(100.0)
	여	308(49.9)	289(46.8)	20(3.3)	617(100.0)
학교구분	남학교	237(55.1)	191(44.4)	2(0.5)	430(100.0)
	여학교	201(49.8)	189(46.8)	14(3.4)	404(100.0)
	남녀공학	205(48.7)	205(48.7)	11(2.6)	421(100.0)
지역	강북	312(45.5)	361(52.7)	12(1.8)	685(100.0)
	강남	331(58.1)	224(39.3)	15(2.6)	570(100.0)
	계	643(51.2)	585(46.6)	27(2.2)	1,255(100.0)

<표 17> 안전교육 담당교사

항 목	구 분	명	%
담당교사	교련교사	313	29.4
	양호교사	224	21.1
	체육교사	170	16.0
	외부강사	163	15.3
	담임교사	100	9.4
	기타(가정(기술)교사, 과학교사, 소방관)	94	8.8
	계	1,064	100.0

(복수표기 가능)

안전교육 교육시간은 교련시간에 가장 많이 받았고, 보건관계행사시, 체육시간 순이었으며 기타에는 조회시간, 타과목결강시간,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이었다<표 18>.

안전교육횟수는 전체 대상의 62.8%가 '한학기에 1-2회'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한학기에 3-4회'가 14.8%로 응답하였으며, 기타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1년에 1-2회' 등이었다. 안전교육시간에 있어서 '한학기에 1-2시간' 남자 37.4% 여자 39.8%로 전체 38.6%를 이루었으며 '수업중 잠깐'이 22.1%, '한학기에 3-4시간'이 18.4% 순이었고 '5-6시간'(4.0%

)이 가장 낮았고 기타로는 '1년에 1시간' 등이 있어서 안전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9>.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구분에 따른 안전교육횟수를 보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모두 '한학기에 1-2회'에 과반수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남녀공학의 경우 '한학기에 5-7회 이상'에서 여학교나, 남학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91, p<0.05$). 또한 안전교육시간에 있어서 남학교, 여학교는 '수업중 잠깐-4시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남녀

<표 18> 안전교육 교육시간

항 목	구 분	명	%
교육시간	교련시간	330	35.5
	보건관계행사시	183	19.7
	체육시간	177	19.0
	일반수업시간(특별활동시간 포함)	129	13.9
	기타(조회, 타과목결강시간 등)	111	11.9
계		930	100.0

(복수표기 가능)

<표 19> 성별에 따른 안전교육횟수 및 시간(한학기)

항목	구 분	성 별		계
		남 명(%)	여 명(%)	
교육횟수(회)	1 - 2	203(60.8)	201(65.0)	404(62.8)
	3 - 4	62(18.6)	33(10.7)	95(14.8)
	5 - 6	16(4.8)	6(1.9)	22(3.4)
	7 -	18(5.3)	25(8.1)	43(6.7)
	기타	35(10.5)	44(14.3)	79(12.3)
교육시간(시간)	수업중 잠깐	81(24.3)	61(19.7)	142(22.1)
	1 - 2	125(37.4)	123(39.8)	248(38.6)
	3 - 4	70(21.0)	48(15.5)	118(18.4)
	5 - 6	16(4.8)	10(3.2)	26(4.0)
	7 -	20(6.0)	42(13.6)	62(9.6)
	기타	22(6.5)	25(8.2)	47(7.3)
계		334(100.0)	309(100.0)	643(100.0)

공학은 '한학기에 1-4시간', '한학기에 7시간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남녀공학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많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표 20>.

안전교육 교육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강의와 비디오교육 방법이 각각 43.8%, 32.5%로 나타났으며, 교육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한적이 없다'가 70.0%로 가장 높게 있고, 실기방법, 보고서검토 순이었다<표 21>.

안전교육경험자중 교육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50.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니다'가 43.1%로 '그렇다

'(6.7%)보다 높게 나타나 대부분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수업이 '형식적이어서'가 31.7%,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24.3%, '현실적 설명이 부족해서' 17.3% 순이었고 '자료가 부족해서'가 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생활 적용여부에 있어서 '보통이다'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니다'가 37.5%, '그렇다'가 9.8%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교육 교육횟수, 교육시간, 담당교사,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성별이나 학교구분별로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0> 학교구분에 따른 안전교육횟수 및 시간(한학기)

항 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χ^2
		명(%)	명(%)	명(%)	
교육횟수(회)	1 - 2	146(61.6)	152(74.5)	106(52.5)	5.91*
	3 - 4	48(20.2)	11(5.4)	36(17.8)	
	5 - 6	10(4.1)	4(2.0)	8(4.0)	
	7 -	2(0.6)	8(3.9)	33(16.3)	
	기타	31(13.5)	29(14.2)	19(9.4)	
계		237(100.0)	202(100.0)	204(100.0)	

*p<0.05

<표 21> 학교구분별 대상자의 안전교육경험에 따른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방법 (단위 : 명(%))

항 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
교육방법	강의	111(46.8)	73(36.3)	100(48.8)	284(43.8)
	비디오교육	71(30.0)	62(30.8)	76(37.1)	209(32.5)
	방송강의	37(15.6)	24(11.9)	8(3.9)	69(10.7)
	기타(토론, 실기 등)	16(6.8)	35(17.5)	14(6.8)	65(10.0)
	무응답	2(0.8)	7(3.5)	7(3.4)	16(2.0)
교육평가방법	평가한적이 없다	195(82.3)	129(64.2)	126(61.5)	450(70.0)
	평가한적이 있다	42(17.7)	72(35.8)	79(23.5)	193(30.0)
	계	237(100.0)	201(100.0)	205(100.0)	643(100.0)

3) 교육받은 안전교육내용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내용을 학교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안전, 스포츠안전, 수상안전, 여행안전, 중독안전, 산업안전, 가스안전, 화재·전기사고, 가정안전, 응급처치법, 사고후 안전 등 13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학교안전에 관한 내용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안전(65.7%), 응급처치법(59.4%), 화재 및 전기안전(58.8%), 교통안전(54.7%), 수상안전(51.1%) 순이었으며 산업안전은 7.3%로 가장 낮았다. ‘산업안전’이 가장 적게 교육받은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와 공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이 나타난 부분으로 박순우(1999)의

〈표 22〉 영역별 교육내용습득여부

(단위 : 명(%))

영역	교육내용습득여부			계
	있다	없다	무응답	
교통안전	686(54.7)	474(37.8)	95(7.5)	1,255(100.0)
가정안전	824(65.7)	333(26.5)	98(7.8)	1,255(100.0)
학교안전	948(75.5)	222(17.7)	85(6.8)	1,255(100.0)
스포츠안전	563(44.9)	596(47.5)	96(7.6)	1,255(100.0)
수상안전	641(51.1)	517(41.2)	97(7.7)	1,255(100.0)
여행안전	430(34.3)	727(57.9)	98(7.8)	1,255(100.0)
중독안전	374(29.8)	782(62.3)	99(7.9)	1,255(100.0)
산업안전	91(7.3)	1,066(84.9)	98(7.8)	1,255(100.0)
가스안전	520(41.4)	639(50.9)	96(7.7)	1,255(100.0)
화재·전기안전	738(58.8)	423(33.7)	94(7.5)	1,255(100.0)
응급처치법	745(59.4)	415(33.1)	95(7.5)	1,255(100.0)
사고후안전	454(36.2)	703(56.0)	98(7.8)	1,255(100.0)
자연재해안전	371(29.6)	785(62.5)	99(7.9)	1,255(100.0)

〈표 23〉 학교구분별 교육내용습득여부

영역	남학교(유)	여학교(유)	남여공학(유)	계	χ^2
	명(%)	명(%)	명(%)		
교통안전	253(58.8)	218(54.0)	215(51.1)	686(54.7)	4.68*
가정안전	290(67.4)	267(66.1)	267(63.4)	824(65.7)	4.03*
학교안전	338(78.6)	320(79.2)	290(68.9)	948(75.5)	3.99*
스포츠안전	207(48.1)	171(42.3)	185(43.9)	563(44.9)	4.10*
수상안전	213(49.5)	224(55.5)	204(48.5)	641(51.1)	4.59*
여행안전	150(34.8)	148(36.6)	131(31.1)	430(34.3)	
중독안전	115(26.7)	131(32.4)	128(30.4)	374(29.8)	5.64*
산업안전	32(7.4)	32(7.9)	27(6.4)	91(7.3)	
가스안전	169(39.3)	173(42.8)	178(42.3)	520(41.4)	4.08*
화재·전기안전	254(59.1)	239(59.2)	245(58.2)	738(58.8)	
응급처치법	211(49.1)	253(62.6)	281(66.8)	745(59.4)	
사고후안전	141(32.8)	154(38.1)	159(37.8)	454(36.2)	5.10*
자연재해안전	132(30.7)	120(29.7)	119(28.3)	371(29.6)	

*p<0.05

연구결과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안전(77.2%)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표 22>.

학교구분에 따른 영역별 교육내용습득에 있어서 학교안전, 수상안전, 중독안전, 가스안전, 화재·전기안전, 사고후 안전에 대해 여학교가 남학교, 남녀공학에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통안전, 스포츠안전, 가정안전 영역에서는 남학교가, 응급처치법은 남녀공학에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에서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23>.

5. 안전교육 요구도

1) 안전교육 필요성

전체 대상자의 58.7%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56.5%, 여자가 61.1%, '필요없다'의 경우 남자 14.6%, 여자 5.4%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전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3.64$, $p<0.05$)<표 24>.

앞에서 조사된 사고발생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안전교육필요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4> 성별에 따른 대상자들의 안전교육 필요정도

항 목	구 분	성 별		계	χ^2
		남 명(%)	여 명(%)		
안전교육 필요성	매우필요하다	86(13.5)	67(10.9)	153(12.2)	3.64*
	필요하다	274(43.0)	310(50.2)	584(46.5)	
	보통이다	175(27.4)	193(31.3)	368(29.3)	
	필요없다	62(9.7)	27(4.4)	89(7.2)	
	전혀필요없다	31(4.9)	6(1.0)	37(2.9)	
	무응답	10(1.5)	14(2.2)	24(1.9)	
	계	638(100.0)	617(100.0)	1,255(100.0)	

* $p<0.05$

<표 25> 안전교육의 독립과목 필요성 여부

항 목	구 분	성 별		계
		남 명(%)	여 명(%)	
독립과목 필요성	매우필요하다	82(12.9)	59(9.6)	141(11.2)
	필요하다	214(33.5)	227(36.8)	441(35.1)
	보통이다	131(20.5)	167(27.1)	298(23.8)
	필요없다	133(20.9)	110(17.8)	243(19.4)
	전혀필요없다	67(10.5)	39(6.3)	106(8.5)
	무응답	11(1.7)	15(2.4)	26(2.0)
	계	638(100.0)	617(100.0)	1,255(100.0)

학교구분에 따라 ‘필요하다’의 경우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순으로 남학교에서의 필요정도가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과정에 독립과목의 필요성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가 582명(46.4%)으로 높았으며 ‘필요없다’ 349명(27.8%), ‘보통이다’가 298(23.8%)순이었다<표 25>. ‘필요하다’의 이유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교육이 필요하기에’가 남녀 모두 65.4%, 71.2%로 가장 큰 이유였고, ‘필요없다’의 경우는 ‘흥미도가 낮아서’, ‘학과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이었다<표 26>.

2) 안전교육 수업 요구도

안전교육 수업시간 요구는 전체 55.9%가 ‘1주일에 1시간’을 원하였고, ‘학년별 다르게’는 19.8%로 1주일에 1시간씩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였으며, 기타로는 ‘매일 아침에 5분’, ‘1달에 1회’ 등이 있었다.

안전교육 담당교사 요구로는 ‘안전교육교사’가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부강사’ 23.8%, ‘교련교사’ 12.9%, ‘양호교사’ 8.6% 순이었다. 기타로는 ‘교감’이나 ‘부모님’ 등이 있었다. 학교구분별로는 ‘안전교육교사’ 남학교 35.4%, 여학교 40.1%, 남녀공학 40.9%이었으며, ‘외부강사’는 남학교 21.6% 여학교 30.2%, 남녀공학 19.7%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0.14$, $p<0.01$).

안전교육 교육방법에서는 비디오 교육(30.6%), 실기(28.9%), 강의(15.4%), 토론식(13.6%) 순이었으며 학생들은 기존의 수용적인 교육방법보다는 시청각자료와 함께 실제적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교육받길 원하고 있었다. 학교구분에 있어서 남학교는 ‘실기’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각각 34.4%, 30.4%로 ‘비디오교육’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각 구분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07$, $p<0.05$).

<표 26> 안전교육의 독립과목 필요성 여부에 따른 이유

항 목	구 분	남	여	계
		명(%)	명(%)	
필요한 이유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교육이 필요하기에	234(65.4)	265(71.2)	499(68.4)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64(17.9)	56(15.1)	120(16.4)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싶어서	26(7.3)	24(6.4)	50(6.8)
	기타	34(9.4)	27(7.3)	61(8.4)
계		358(100.0)	372(100.0)	730(100.0)
필요하지 않은 이유	흥미도가 낮아서	95(33.9)	60(24.5)	155(29.5)
	학과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78(27.9)	72(29.4)	150(28.6)
	지금 정도의 안전교육에 만족하기에	58(20.7)	31(12.6)	89(16.9)
	대학입시와 무관하므로	19(6.8)	38(15.5)	57(10.8)
	기타	30(10.7)	44(18.0)	74(14.2)
계		280(100.0)	245(100.0)	525(100.0)

교육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실기 43.1%, 면담 17.1%, 관찰 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객관식 시험(4.4%), 주관식시험(1.4%)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타로는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 등이었다. 교육방법에 이어 평가방법에서도 앞선 실태에서 보여진 기존의 시험 방식이나 평가되지 않는 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를 원하고 있었다. 학교구분별로 실기방법이 남학교 44.2%, 여학교 38.6%, 남녀공학 46.6%이었으며 면담

방법은 남학교 17.7%, 여학교 19.6%, 남녀공학 14.3%로 각 구분내 차이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0.26, p<0.01$)<표 27>.

요구된 교육방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의사가 있다'가 41.9%, '보통이다' 39.8%, '참여의사가 없다'가 15.1%로 나타났고 학교구분별로는 남학교가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높은 참여의향을 보였는데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70, p<0.05$).

<표 27> 학교구분에 따른 안전교육 수업 요구도

항 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명	χ^2
		명(%)	명(%)	명(%)		
안전교육	1	231(53.7)	243(60.2)	227(53.9)	701(55.9)	
수업시간수	2	61(14.2)	36(8.9)	70(16.6)	167(13.3)	
(1주)(시간)	학년별로다르게	84(19.5)	80(19.8)	85(20.2)	249(19.8)	1.21
	기타(아침에 5분, 1달에 1회 등)	45(10.5)	33(8.2)	25(5.9)	103(8.2)	
	무응답	9(2.1)	12(2.9)	14(3.4)	35(2.8)	
안전교육 담당교사	안전교육교사	152(35.4)	162(40.1)	172(40.9)	486(38.7)	
	교련교사	50(11.6)	62(15.4)	50(11.9)	162(12.9)	
	양호교사	57(13.3)	8(2.0)	43(10.2)	108(8.6)	10.14**
	외부강사	93(21.6)	122(30.2)	83(19.7)	298(23.8)	
	기타(체육, 과학, 담임교사, 부모님)	70(16.2)	34(8.4)	47(11.3)	151(12.0)	
	무응답	8(2.9)	16(3.9)	26(6.0)	50(4.0)	
교육방법	강의	56(13.0)	57(14.1)	79(18.8)	192(15.4)	
	비디오교육	117(27.2)	139(34.4)	128(30.4)	384(30.6)	
	토론식	83(19.3)	32(7.9)	56(13.3)	171(13.6)	5.07*
	실기	144(33.5)	107(26.5)	112(26.6)	363(28.9)	
	기타(방송강의 등)	21(4.9)	47(11.7)	24(5.8)	92(7.3)	
	무응답	9(2.1)	22(5.4)	22(5.1)	53(4.2)	
교육	실기	190(44.2)	156(38.6)	196(46.6)	542(43.1)	
평가방법	면담	76(17.7)	79(19.5)	60(14.3)	215(17.1)	
	관찰	77(17.9)	65(16.0)	66(15.7)	208(16.6)	10.26**
	보고서 검토	22(5.1)	40(9.9)	36(8.6)	98(7.8)	
	기타(주관식, 객관식 시험)	59(13.7)	44(11.0)	39(9.2)	142(11.4)	
	무응답	6(1.4)	20(5.0)	24(5.6)	50(4.0)	
	계	430(100.0)	404(100.0)	421(100.0)	1,255(100.0)	

*p<0.05 **p<0.01

안전교육이수에 따른 가산점부여방식(운전 면허 취득시 가산점 부여방식)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72.0%가 '찬성한다'고 하였고 '반대한다'가 24.7%로 나와 4명중 1명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표 28>. 성별, 지역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안전교육 요구도에 있어 연구 대상자들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영역별로 순위를 보면 수상안전이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 및 전기안전(3.70점), 가스안전(3.58점), 응급처치법(3.54점), 중독안전(3.54점), 사고후안전(3.53점), 학교안전(3.48점), 여행안전(3.46점), 교통안전(3.46점), 가정안전(3.42점), 스포츠안전(3.35

점), 자연재해안전(3.33점), 산업안전(3.05점) 영역의 순이었다. 전체 영역의 요구도 점수는 평균 3.48점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로는,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예방', '안전벨트가 주는 사고 예방', '자전거 및 오토바이 안전' 순이었다. 가정안전영역에서는 '성폭력예방'이 3.82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안전에 관한 태도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안전문제에서도 높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보안과 법적 제도의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다.

학교안전 영역에서는 '학내폭력예방'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내에 시설이나 부주의에 대한 예방보다는 현재 학내 집단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28> 학교구분에 따른 안전교육 참여의사와 이수에 따른 가산점부여의사

항 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	χ^2
		명(%)	명(%)	명(%)		
참여의사	많이있다	44(10.2)	12(3.0)	21(5.0)	77(6.2)	5.70*
	있다	166(38.6)	137(33.9)	145(33.4)	448(35.7)	
	보통이다	143(33.3)	194(48.0)	162(38.5)	499(39.8)	
	없다	24(5.6)	37(9.1)	43(10.2)	104(8.2)	
	전혀없다	47(11.0)	8(2.0)	32(7.6)	87(6.9)	
	무응답	6(1.3)	16(4.0)	18(4.3)	40(3.2)	
가산점여부	찬성한다	293(68.1)	306(75.7)	302(71.7)	903(72.0)	1.05
	반대한다	129(30.0)	82(20.3)	99(23.5)	310(24.7)	
	무응답	8(1.9)	16(4.0)	20(4.8)	42(3.3)	
	계	430(100.0)	404(100.0)	421(100.0)	1,255(100.0)	

*p<0.05

〈표 29〉 대상자의 영역별 안전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영역	세부항목	안전교육 요구도점수 (Mean±S.D)	영역별 요구도점수
교통안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3.61±0.94	3.46±0.87
	안전벨트가 주는 사고예방에 대해	3.58±0.91	
	보행자 안전에 대해	3.42±0.88	
	자전거 및 오토바이 안전에 대해	3.57±0.94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에 대해	3.39±0.90	
	안전운전에 대해	3.51±0.95	
	기타(스케이트보드, 롤러브레이크, 킥보드 등)안전에 대해	3.19±1.01	
가정안전	생활예절 및 질서훈련에 대해	3.24±0.95	3.42±0.94
	가정내 안전사고 원인 및 예방에 대해	3.40±0.90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3.30±0.88	
	유해·위험물질 및 폭발물 안전에 대해	3.41±0.89	
	놀이안전에 대해	3.31±0.91	
	유괴·납치예방에 대해	3.48±1.01	
	성폭력 예방에 대해	3.82±1.02	
학교안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3.43±0.89	3.48±0.81
	교내 안전에 대해	3.35±0.83	
	가정 및 기술시간의 안전에 대해	3.43±0.87	
	실험실습안전에 대해	3.69±0.89	
	체육시간내의 안전에 대해	3.47±0.84	
	학내폭력예방에 대해	3.73±0.92	
	등·하교시의 안전에 대해	3.27±0.93	
스포츠안전	스포츠 사고의 원인, 종류, 예방에 대해	3.31±0.93	3.35±0.78
	각종경기별 상해와 응급처치에 대해	3.40±0.98	
수상안전	물놀이 사고원인과 수상안전 수칙에 대해	3.67±0.93	3.71±0.92
	수상사고시 응급처치법에 대해	3.75±0.92	
여행안전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에 대해	3.32±0.94	3.46±0.92
	여행중 발생하는 사고와 대처요령에 대해	3.54±0.92	
	등산이나 야영시 안전에 대해	3.53±0.91	
중독안전	식중독예방과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3.53±0.89	3.54±0.92
	올바른 일반약품사용법에 대해	3.55±0.94	
산업안전	산업안전 개념과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예방에 대해	3.04±0.96	3.05±0.96
	근로자의 종합검진과 산재보험에 대해	3.06±1.00	
가스안전	가스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점검법에 대해	3.58±0.89	3.58±0.92
	LPG가스와 도시가스의 차이와 가스가 켜질 때 대처방법에 대해	3.59±0.94	
화재· 전기 안전	화재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손해에 대해	3.61±0.90	3.70±0.89
	화재의 종류와 진화의 방법에 대해	3.67±0.89	
	소화기 사용법과 보관에 대해	3.78±0.89	
	화재발생시 안전대피법에 대해	3.78±0.87	
	전기감전과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3.67±0.91	
응급 처치법	응급처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3.59±0.89	3.54±0.93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3.73±0.85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법에 대해	3.72±0.92	
	활력증상 측정법	3.32±0.95	
	붕대법에 대해	3.44±0.99	
	환자 운반법에 대해	3.49±0.93	
사고후 안전	집단부상자 발생시 관리법에 대해	3.45±0.91	3.53±0.96
	유형별응급처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창상, 출혈 충격, 열과냉에 의한 손상, 교상, 전간, 이물제거, 골절 등)	3.60±0.97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3.47±0.92	
	사고 후 장애극복방법에 대해	3.46±0.97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3.88±0.98	
계		3.48±0.86	

스포츠안전에서는 '각종 경기별 상해와 응급처치'가, 수상안전에서는 '수상사고시 응급처치법'이 3.75점으로 매우 높았고, 여행안전 영역에서는 '여행중 발생하는 사고와 대처요령'이 3.54점으로, 중독안전영역에서는 '올바른 일반약품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3.55점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산업안전영역에서는 전반적인 항목에서 가장 낮은 요구도 점수(3.05점)를 보이고 있어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산업과 무관하다는 생각에서 초래된 결과로 앞서 살펴본 교육내용현황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가스안전 영역에서는 '가스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점검법', 'LPG가스와 도시가스의 차이'와 가스가 켜 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각각 3.58점, 3.59점으로 비슷하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고, 화재 및 전기안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소화기사용법과 보관에 대해'와 '화재발생시 안전대피법에 대해'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가스와 화재 및 전기가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교육하여 사고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사료된다.

응급처치법 영역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법'에 대해 3.72점, '유형별 응급처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가 3.6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안전 영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가 3.88점으로 현저하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예전과 다른 시각에서 소외된 계층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서 학생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

육내용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재해 안전 영역에서는 '자연재해 예방과 국민행동요령'에서 높았다.

세부항목중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였으며, '성폭력예방에 대해', '소화기 사용법과 보관에 대', '화재발생시 안전대피법에 대해' 순이었다<표 29>.

한편 이명숙(1999)은 학생과 교사의 요구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안전과 응급처치 영역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에서는 학생 74.6%, 교사 65.3%, '인공호흡방법'에서는 학생 70.7%, 교사 63.3%, '성폭력발생원인 대책'에서는 학생 66.4% 교사 72.7%로 대부분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성별, 학교구분별로 13개 영역의 안전교육내용 요구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남녀 학생들의 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안전교육 요구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안전, 응급처치법, 사고후 안전을 제외한 10개 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p < 0.01$)<표 30>.

학교구분별 안전교육내용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교가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공학, 남학교 순이었다 학교안전 ($p < 0.01$), 교통안전($p < 0.001$), 자연재해안전 ($p < 0.001$), 수상안전($p < 0.01$), 여행안전($p < 0.01$), 중독안전($p < 0.001$), 산업안전($p < 0.01$), 가스안전 ($p < 0.05$), 화재·전기안전($p < 0.01$), 가정안전 ($p < 0.001$), 사고후 안전($p < 0.05$)등 11개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안전과 응급처치법 영역에서는 대

체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구분 별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표 31>.

앞에서 조사된 안전교육실태에 있어서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평가방법, 담당교사에 서 학교구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안

<표 30>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성별 요구도 점수

구분	남	여	t
	Mean±S.D.	Mean±S.D.	
교통안전	3.36±0.94	3.56±0.77	-3.61*
가정안전	3.33±0.99	3.53±0.85	-3.87*
학교안전	3.42±0.88	3.54±0.73	-2.33*
스포츠안전	3.34±0.94	3.37±0.79	-0.71
수상안전	3.64±0.82	3.79±0.85	-2.66*
여행안전	3.40±0.84	3.53±0.83	-2.40*
중독안전	3.44±0.97	3.65±0.84	-3.90*
산업안전	2.95±0.79	3.15±0.88	-3.37*
가스안전	3.54±0.98	3.63±0.84	-1.71
화재·전기안전	3.63±0.80	3.77±0.84	-2.73*
가정안전	3.33±0.99	3.53±0.85	-3.87*
응급처치법	3.51±0.92	3.58±0.79	-1.27
사고후 안전	3.55±0.84	3.65±0.88	-1.82
자연재해안전	3.20±0.99	3.47±0.79	-4.47**

*p<0.05 **p<0.01

<표 31> 학교구분별 안전교육내용 요구도 점수

구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F
	Mean±S.D.	Mean±S.D.	Mean±S.D.	
교통안전	3.36±0.97	3.63±0.72	3.41±0.87	9.46***
가정안전	3.32±1.01	3.57±0.84	3.38±0.89	8.14***
학교안전	3.44±0.89	3.59±0.70	3.41±0.82	5.74**
스포츠안전	3.35±0.90	3.41±0.83	3.31±0.76	1.75
수상안전	3.64±1.00	3.83±0.84	3.67±0.90	4.49**
여행안전	3.41±0.88	3.58±0.76	3.41±0.82	4.67**
중독안전	3.46±0.87	3.72±0.81	3.47±0.91	10.30***
산업안전	2.94±1.05	3.20±0.91	3.02±0.97	7.21**
가스안전	3.54±1.01	3.68±0.82	3.53±0.91	3.28*
화재·전기안전	3.63±0.94	3.82±0.84	3.66±0.88	5.47**
응급처치법	3.53±1.01	3.56±0.84	3.54±0.91	1.04
사고후 안전	3.55±1.07	3.66±0.87	3.60±0.92	3.14*
자연재해안전	3.17±1.05	3.53±0.81	3.32±0.81	11.75***

*p<0.05 **p<0.01 ***p<0.001

전교육 요구도에 있어서는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안전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차이가 나지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교육요구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교육받은 수업형태나 내용이 아닌 좀더 참여적이고 많이 습득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내용 이외에 안전교육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요구도는 응답률은 전체 29.6%이었고, 응답자중 54.2%가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 '우리가 모두 안전하도록 노력하자'(13.3%),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고 초등학교부터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한다'(10.4), '안전교육이 많이 실시되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6.7%) 등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전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교육실태와 요구도를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1,255명을 대상으로 2001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분포는 남학생 50.8%, 여학생 49.2%이었으며, 학교구분은 남학교가 34.3%, 여학교 32.2%, 남

녀공학 33.5%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지역으로는 강북 54.6%, 강남 45.4%이었으며, 통학방법으로는 버스 42.8%, 도보 3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사고경험실태에서 남학생(85.1%)이 여학생(80.7%)보다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p<0.05$), 항목별로는 가정사고가 56.8%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세부항목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농구·축구·피구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보건실 이용실태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p<0.01$).
3. 안전에 관한 태도에서 안전문제(5.4%)는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안전문제 심각성여부에 대한 질문에 '심각하다' 50.4%, '보통이다' 32.1%로 대부분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고,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안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p<0.05$).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시민개개인'(63.1%)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전지식정도에 대해 응답자중 '알고 있다'가 22.6%로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안전수칙이행에 관한 질문에 '지킨다'가 36.4%로 응답하였다.

보건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안전수칙을 더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구대상자가 본 타인의 안전수칙이행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다'(42.9%)고 여기고 있었다.

4. 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경험한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51.2%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전교육 담당교사로는 주로 '교련교사'(48.7

%)가 담당하였고, 교육시간은 '교련시간'(51.3%)에, 교육횟수는 한 학기에 '1-2회'가 62.8%로 가장 많았으나, 남녀공학의 경우 '5-7회 이상'(20.1%) 실시하기도 하였다. 교육시간은 한 학기에 '1-2시간'(22.1%), 혹은 '수업중 잠깐'(22.1%)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의'(43.8%)와 '비디오교육'(32.5%)이었으며, 교육평가방법은 '실시한 적이 없다'(70.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교안전교육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43.1%)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이미 알고있는 수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등이었다. 교육받은 안전교육내용으로는 '학교안전', '가정안전', '응급처치법' 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전체 남학생의 56.5%와 여학생의 61.1%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독립과목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46.4%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교육이 필요하다'가 큰 이유였다.

6. 안전교육 요구도에서 수업시간은 전체 55.9%가 '1주일에 1시간'을 원하였고, 담당교사로는 안전교육교사가 38.7%로 가장 높았고, 교육방법으로는 남학교는 '실기교육'을, 여학교·남녀공학은 '비디오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교육평가 방법에서 '실기' 43.2%, '면담' 17.1%, '관찰' 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참여에 있어 남학교가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다($p < 0.05$). 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가산점부여방식(운전면허 취득

시 가산점 부여방식)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72.0%가 '찬성한다'고 하였고 '반대한다'가 24.7%로 4명중 1명은 안전교육이수에 따른 가산점부여방식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7. 안전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에서 세부항목 중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가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성폭력예방', '소화기 사용법과 보편법', '화재발생시 안전대피법' 순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므로,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함께 파악하는 연구가 행해졌으면 한다.
2. 본 연구는 안전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안전교육 교과과정의 개발을 통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여 그 적절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졌으면 한다.
3. 좀더 구체적인 안전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영역과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자활동, 평가,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곽상만, 김영준.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7.

곽은복. 안전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교육부, 1997.

교육부. 교원정책담당관실 통계. 교육부, 1999.

김동훈. 학교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기술향상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김형식. 공업계 고등학교의 산업안전교육 실태에 따른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도로교통안전협회.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과정 및 체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6.

문태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실증적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순우.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의 안전·보건교육실태 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 16(1): 1-29.

백경원. PRECEDE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진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백경희. 취학전 아동 교통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서래환. 안전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학생사안의 예방과

지도.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82.

서울학교 안전공제회. 서울학교 안전공제회 회보. 1998.

서울학교 안전공제회. 서울학교 안전공제회 회보. 1999.

송선양. 중학교 화학실험의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신동욱.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오성근. 공업고등학교의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유혜경.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윤재길. 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명선. 중등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안전연대·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이명숙. 고등학교 보건교육 현황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지영.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인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희정. 보육시설 안전에 대한 종사자와 학부모의 요구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전성태. 초등학교의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전춘옥. 초등학교 학내사고에 관한 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장시준. 공업고등학교 실습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정구원. 공업고등학교 실습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정명애. 학교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충국. 학교안전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하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고 기술과 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백서. 건설안전관리본부, 1996.

최영일.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교육연감. 한국교육신문사, 2000.

허재화. 공립유치원 종일제의 안전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Beyer, D. L.. Safety A personal focus.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 1988.

Development of Health. The Health of the Nation. 1992, 134-135

Develop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United States DHHS Pub. No.(PHS) 1991; 92(1232): 161-162.

Fife, D., J. I. Barancik, and B. F. Chatterjee. Northeastern Ohio Trauma Study: II. Injury Rates by Age, Sex, and

Ca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4; 74(5): 473-478.

Graunbaum, J.A., Gingiss, P., Orpins, P., Batey, L.S., Parcel, G.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chool health program needs assess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1995; 65(2): 54-59.

McGuire, J. G.. Prevention: Key to a healthy lifestyle. Journal of School Health 1997; 67(1): 33-35.

McNab, W. L.. Incorporating farm safety into the health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School Health 1998; 68(5): 213-215.

Miller, D. F.. Safety: Principles and issues. Madison: Brown & Benchmark, 1995.

McDiarmid, M. 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health mode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0; 90(2): 186-187.

Morgenstern, H., Bingham, T., Reza, A.. Effects of pool-fencing ordinances and other factors on childhood drowning in Los Angeles County, 1990-1995.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0; 90(4): 595-601.

National Safety Council. Accident Facts. Chicago. NSC, 1983.

Scheidt, P. C.. Behavioral Research toward Prevention of Childhood Injury. American Journal of Disease of Children 1988; 142: 612-617.

〈ABSTRACT〉

Needs Assessment of Safety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in-Ah Kim* · Myung-Sun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Unexpected accidents in school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and student's mistaken was the first reason of the accident. To preventing the students from Unexpected accidents in school, safe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strong facilities to have much more strong protecting forces for the accidents. Therefore, systematic education of safety is needed most of all, and especially, strengthening safety education in school is needed.

Hereby,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and analysing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safety education. It also conducted a survey with the target of 1,255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in Seoul from April 20 to May 19,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I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ubject of the survey, boy students and girl students occupied 50.8% and 49.2% each, and boys' high school (34.3%), girls' high school(32.2%) and co-ed(33.5%) participated in balance. In the location, north from Han river occupied 54.6%, south were 45.2%.
2. According to the status of experiencing an accident, boys were more experienced than girls($p<0.05$). From the section, home accident(56.8%) occupied most followed by school accident, traffic accident, sports accident and poisoning. The accident happening most often in detailed category is sports accident such as basket ball, foot ball and dodge ball.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ubject's using a school health facility shows that boys students use it more often than girl students($p<0.01$).
3. In attitude toward safety, the subject showed lower interest in safety issues than other social issues. But attitude in seriality of safety problems were high. Also, they responded 'individual citizen'(63.1%) as the one who should make efforts for safety. Regarding knowledge of preventing safety accidents in attitude toward individual safety, 42.2%

answered 'they know a little' and 32.6% of respondents say 'they do not know'. To a question of the degree of the subject's following safety rules, 36.4% were answered 'keeping' and the group using a school health facility shows more 'keeping' the others($p < 0.05$).

4. To a question of asking if they have experienced safety education, 51.2% answered 'yes'. Teachers who mainly take care of safety education are answered as training teacher(48.7%). As for education time, training class(51.3%) is said to have safety education most followed by health-related event and PE(Physical Education). Frequency of education shows once or twice a session(62.8%) most often, but in case of co-ed school, 5-7times a session or more(20.1%) are being practiced. Looking at education time, 1-2 hour(s)(22.1%) or for a short time(22.1%) during class are being practiced. As an education method, instruction(43.8%) and video education(32.5%) are being practiced, and when it comes to education evaluation method, 'not practiced'(70.0%) answered. To the question if they are satisfied with school safety education, they answered more 'no(43.1%)' than 'yes(6.7%)', and the reason is that safety education class is just for formality's sake, and the fact they already know is being repeated. The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is composed of school safety, home safety, and first aid.
5. It is turned out that 56.5% of the total boy students and 61.1% of the total girl students recognize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To the question if safety education is needed in an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course, 46.4% of the subject answer answered 'it's necessary'. The most reason for their answers are 'safety education is directly related to life'.
6. Regarding the requested time of safety education is 'one hour a week' by 55.9%. For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teachers(38.7%) are answered to be the most proper. As a request for safety education, video education is answ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30.6%), followed by practical skills, lecture and discussion($p < 0.05$). Demand of educational evaluation, practical skills, interview and observation are answered to be needed. To the question if they want to participate in the way of demanded safety education, 41.9% of respondents answer 'have a mind to participate in'(41.9%). To benefits followed by completing safety education, 72.0% of respondents answer 'agree', and 24.7% 'do not agree', which means 1 out 4 disagrees with completing safety education.
7. Looking at demand of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subject, 'our position for the person who has handicapped' was answer to the most.